

## 반공의 규율과 자기검열의 서사

—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와 『그해 5월』의 경우\*

강진호\*\*

### 요약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반공주의가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기제로 내면화되어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와 『그해 5월』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고문이나 연좌제와 같은 원초적 공포와 결합되어 있었고, 그래서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피해치고자 할 경우 작가들은 자칫 반공주의의 검열망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심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런 현실에서 이병주는 박정희 쿠데타 직후 용공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한 뒤 석방된다. 이병주가 출옥 후 발표한 작품의 제목에 편집자가 ‘소설’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이나 작가가 ‘알렉산드리아’는 먼 외국을 배경으로 서사를 구성한 것은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사후 발표한 『그해 5월』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서 구속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박정희의 만행을 기록한 것은 자기검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기록자가 되어 박정희 집권기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그해 5월』은 한 시대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문학적 소임을 수행한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을 앞세워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하였고, 「분지」(남정현) 필화사건을 통해서 문학마저 정권 유지를 위해 탄압하는, 휴머니즘마저 질식케 하였다. 작가는 그러한 폭정이 북한에 의해 조성된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60년대 후반기에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엄청나게 늘었고, 김일성은 70년대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성신여대 국문과 교수

가서는 남조선을 해방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남공작을 급격하게 활성화시켰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간첩의 침투를 막는 정책이나 방침을 강화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정책이나 방침이 되고 또 반정부 행동을 이적행위로 보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런 현실을 적시하면서 작가는 “죽어나는 것은 북한의 인민이고 남한의 인민이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남북의 통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안정은 바랄 수 없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선 민족이 그 품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문제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작품 말미에서 언급된 이런 견해는 이병주 문학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주를 구속시킨 두 편의 칼럼이나 대표작 「소설·알렉산드리아」, 『지리산』, 『그해 5월』, 『소설 남로당』 등은 모두 통일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분단과 검열의 족쇄를 뚫고 나간 이병주 문학의 행로란 결국 통일에서 시작해서 통일로 종결되는 통일문학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병주, 규율과 감시, 검열, 자기검열, 반공주의, ‘분지’ 필화사건, 「소설·알렉산드리아」, 『그해 5월』, 통일문학

## 목차

1. 검열과 자기검열
2. 검열과 알레고리라는 형식 (「소설·알렉산드리아」의 경우)
3. 증언과 기록으로써의 글쓰기(『그해 5월』의 경우)
4. 통일에서 통일로 종결된 문학

## 1. 검열과 자기검열

감시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수용자는 끊임없이 감시되는 구조를 가진 감옥을 최초로 구안한 사람은 벤담이고 푸코는 그것을 『감시와 처벌』에서 현대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다. 일망 감시시설(판옵티콘)로 알려진 이 원형감옥은 가운데 있는 감시탑에서 바깥쪽 감옥의 수감자를 감시하는 구조로,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

늘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며 통제를 받는다. 사람의 몸은 통제하고 금지하며 조절하는 권력 앞에 노출된다. 감옥은 그 축소판이고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학교, 병원, 공장, 회사 등의 모든 장소에서 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련의 기법이 동원된다. 길들여진 몸을 만드는 여러 기법들과 전술을 통틀어 푸코는 ‘규율’이라고 했는데,<sup>1)</sup> 이 기법들이 모세혈관처럼 사회 전 영역을 관통하면서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오늘의 현대사회이다.

이런 현실과 비교하자면 과거 전체주의 시절의 감시와 통제는 한편으로 소박한 것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감시와 통제는 어떤 행동이나 작품을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의미했다. 신문이나 서적, 방송과 영화 등의 표현내용을 문제 삼고 때로는 우편과 같은 사적 서류에 대해서도 검열을 실시했지만, 한정된 영역에서 가시적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전제 정권은 무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한층 강압적으로 시행하였다. 규율을 어기면 구금·고문하고 심할 경우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등 배제의 방법을 동원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다. 작품을 발표한 뒤 잠적하거나 검열에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작품을 숨기거나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공포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심리적 방어기제가 자기검열이다. 자기검열은 가상의 시선이나 평가를 상상하면서 시작된다. 자기검열은 검열을 어겼을 경우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 억압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을 발표한다. 신체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마저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원형 감옥 이상으로 잔혹하다. 다음 시는 그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모두 별안간에 가만히 있었다 / 씹었던 불고기를 문 채로 가만히 있었다 / 아니 그것은 불고기가 아니라 돌이었을지도 모른다 / 신은 곧잘 이런 장난을 잘한다 // (그리 흥겨운 밤의 일도 아니었는데) / 사실은 일본에 가는 친구의 잔치에서 / 이토츠키(伊藤忠) 상사(商事)의 신문광고 이야기가 나오고 / 곳쿄노 마찌 이야기가 나오다가 / **이북으로 갔다는 나가타 겐지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 아니 김영길이가 / 이북으로 갔다는 김영길이 이야기가 / 나왔다가 들어간 때이다** // 내가 나가토(長門)라는 여가수도 같이 갔느냐고 / 농으로 물어보려는데 / **누가 벌써 재빨리 말꼬리를 돌렸다...** / 신은 곧잘 이런 꾸지람을 잘한다

— 「나가타 겐지로」<sup>2)</sup> (강조-인용자)

수선스러운 술자리에서 별안간 침묵이 흐르고 씹던 불고기가 돌연 돌로 느껴진 것은 ‘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간’ 데 있다. 모두들 ‘돌’을 씹은 듯이 얼어붙은 긴장의 순간에 개입된 것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어딘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시자의 시선이다. 이 감시의 시선은 “그리 흥겨운 밤의 일도 아니었”던 특별하지 않은 때, 자연스럽게 일상에 침투해서 이렇듯 사소하고 허망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것을 김수영은 ‘신의 장난’이라고 일컬었다.<sup>3)</sup> 김수영은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도망해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체험은 그를 평생토록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했다. 5·16이 일어나자 대역새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머리를 중처럼 깎고 나타났고,<sup>4)</sup> 북쪽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을 다룬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나 의용군 체험을 담은 미완의 소설 「의용군」은 써놓기만 하고 아예 발표조차 하

2) 김수영, 「나가타 겐지로」, 『김수영 전집1』, 민음사, 2018, 221면. ‘나가타 겐지로’는 김영길이라는 재일교포 테너 가수로 1960년에 북송되었다. 곳쿄노 마찌(國境の町, 국경의 거리)는 1934년 발표되어 크게 유행한 노래 제목이다.

3) 김혜진, 「김수영 문학의 ‘불운’과 언어적 형식」, 『한국시학연구』(55), 한국시학회, 2018.8, 191-2면.

4)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18, 340-341면.

지 않았다. 군사정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의용군에 복무한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불안이 그를 내면에서 규율한 것이다.

문필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수영과 동갑내기인 이병주(1921년생)가 마주한 현실 역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러한 전체 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전체 정권이 구사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의 성원들에게 어떤 회의나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율이었다. 그것은 비록 특정한 내용의 기의로 채워지지 않은 기표로만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기의의 그 텅 빔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사상을 규제하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였다.<sup>5)</sup> 그런 현실에서 이병주는 빨갱이로 오해받아 큰 고통을 겪는다. 이병주는 6.25 당시 인민군과 국군에게 각각 체포되어 고초를 겪는가 하면 출가를 위해 해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해인사를 습격한 빨치산에 의해 납치될 뻔한 위기를 넘겼고,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하동군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자유당에 의해 빨갱이로 낙인찍혀 낙선한 적도 있었다.<sup>6)</sup> 그런 상황에서 필화사건을 겪게 된 것이다. 이병주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 동안 <국제신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을 겸하면서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1961년 5.16 직후 돌연 체포된다.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혁명 검찰부를 구성하고 교원노조 운동을 용공으로 매도하며 소속 간부들을 잡아들였는데, 이병주는 교원노조 고문을 맡고 있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혁명검찰은 「조국의 부재」와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라」라는 2개의

5) '반공'이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반대의 대상과 지향의 내용이 '주의'를 붙일 정도로 뚜렷한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내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반공주의는 어떤 구체적 지향과 가치를 내포한 용어가 아니고 특정 집단과 이념을 부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부정적인(negative) 용어이다. 그래서 반공주의는 강한 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6) 이병주의 『1979년:이병주 칼럼』(세운문화사, 1978) 및 자전소설 『관부연락선』 참조. 이병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정미진의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 이병주 사상 재론」(『배달말』63, 2108.12, 469-496면) 참조.

칼럼을 문제 삼아 제소한다. ‘중립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혁명재판부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한 뒤 석방되었다.

오늘날 보자면 별로 문제 될 것도 없는 칼럼(자세한 것은 3장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병주가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던 것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한국군 내 공산주의자의 일원이었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에도 공산주의자여서 재판관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군 내부에 있던 3백 명가량의 남로당계 관련자 명단을 넘겨줌으로써 극형을 모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 전력 때문에 5·16 직후 미국이 그의 사상을 의심하자 좌익, 혁신정당, 교원노조, 각종 노조 지도자, 보도연맹원을 영장 없이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좌익으로 의심받던 이병주 또한 걸려든 것이다.<sup>7)</sup> 그런 관계로 이병주는 구속을 몹시 억울해하고 분노하였다. 더구나 이병주는 박정희와 술자리를 같이할 정도로 안면이 있었고, 쿠데타 이후 실세가 된 황용주(박정희와 대구사범 동창생)와도 친분이 있었다. “술친구였던 박 대통령이 자기를 2년 7개월이나 감옥살이를 시키다니... 잡혔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원한이 사무치게 된 것이다.” 그런 절치부심에서 이병주는 박정희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는 과거 일제강점기나 해방기로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간접화법을 통해서 이념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글에서 주목하는 「소설·알렉산드리아」가 직필(直筆)이 아닌 우의(寓意)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그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병주는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몇 년간 직필을 구사했고 그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필설의 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8)</sup> ‘기록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소설가가 되고, 출옥

7) 임현영, 「분단 후 작가 구속 1호 이병주」, 〈경향신문〉, 2017, 3.2.

8) 이병주는 논설을 썼던 수년의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회상하는 때’라고 하고, 소설가가 된 자신을 “대설가(大說家)가 소설가(小說家)로 전락한 셈”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후 첫 작품으로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우의(allegory)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필화사건 이후 이병주는 ‘요시찰 대상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태였다. 그런 세월을 보낸 뒤 박정희 사후 “원한에 사무쳤던” 박정희 통치 18년을 고발하듯이 증언한 『그해 5월』(82-88)을 발표하는데, 이는 검열의 규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80년대 초반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자기검열이라는 심리적 억압상태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민주적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백과 반성이 나타나고 점차 자기검열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다.<sup>9)</sup> 더구나 이병주는 전두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들의 초상』에서 이병주는 전두환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찾아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최선주의자”라고 극찬하고, 수시로 만나 정담을 나누는 친분을 맺고 있었다.<sup>10)</sup> 『그해 5월』에서 이병주는 자신을 작품 속에 직접 등장시켜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사의 변론, 속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인용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박정희 통치 기간에 일어난 여러 공안사건과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일지 형식으로 제시한다.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며 자료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5.16은 쿠데타’이고 ‘박정희는 결코 출현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견해를 자료를 통해서 증언한 것이다. 직필로 구속까지 되었던 작가가 자기를 검열한 권력자를 심판하는 문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여기서 「소설·알렉산드리아」와 『그해 5월』을 비교하는 것은, 두 작품

---

소설은 “인생의 밀도”를 표현하는 데 대설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에서 소설에 다 대설을 삽입하는 형식의 작품을 다수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을 기본 틀로 하면서 논설과 칼럼, 공소장과 변론 등의 대설을 결합한 『그해 5월』의 독특한 양식은 그런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병주의 「실격교사에서 작가까지」(『1979년·이병주 칼럼』(세운문화사, 1978) 참조.

9) 조항제, 「언론 통제와 자기검열—개념적 성찰」, 『언론정보연구』54(3),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7.8, 41-72면.

10) 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전두환 편」 참조.

이 15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작가 자신(혹은 분신)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언급되는 사건 역시 동일하다는 데 있다. 『그해 5월』은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저본으로 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서사를 추가해서 장편화한 개정 증보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두 작품 사이에는 반공주의에 따른 검열이라는 프리즘이 놓여 있어 작품의 구성과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검열로 인해 「소설·알렉산드리아」는 우의라는 간접화의 방법을 구사했다면, 『그해 5월』은 그것이 완화되면서 논설과 칼럼, 공소장과 변론 등을 활용한 직설의 방법을 구사하였다. 그런 사실을 고찰하면서 반공주의가 자기검열의 기제가 되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검열과 알레고리라는 형식 (「소설·알렉산드리아」의 경우)

이병주는 자신의 체험을 근간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창작방법을 즐겨 활용한 작가이다. 자신이 겪은 드라마와 같은 삶의 곡절을 「소설·알렉산드리아」, 『관부연락선』, 『지리산』, 「변명」 등 다수의 소설과 칼럼을 통해 제시했는데, 이들 작품은 사적 체험을 근간으로 식민치하의 삶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병주는 어떤 사상이라도 사상의 형태로 있을 때는 무해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목표를 갖는 조직으로 행동화되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보았다. 공산주의도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국민을 노예화하는 등 엄청난 악을 자행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시에 비판했고, 필화사건의 빌미가 된 칼럼에서는 ‘이북의 이남화’나 ‘이남의 이북화’가 아닌 ‘중립통일’이 차선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런 주장



은 북진통일과 반공을 앞세웠던 현실에서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1961년의 필화사건은 그런 오해가 불러온 ‘불려(不慮)의 화’<sup>11)</sup>였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병주는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한다. 그것은 우선 작품을 전제하면서 제시된 「편집자의 말」과 소설 제목에 ‘소설’이라는 말을 붙인 데서 드러난다.

“어떤 사상이건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은 감옥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엔 모가 있는 법인데 그 사상은 어느 때 한번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작자는 말하고 있다. 이병주 씨는 직업적인 작가가 아니다. 오랫동안 언론계(전국제신보 주필)에 종사하며 당하고 느낀 현대의 사상을 픽션으로 승화시킨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다. 화려하고 사치한 문장과 번뜩이는 사변의 편린들은 침체한 한국 문단에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이다.<sup>12)</sup>

작품의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은 감옥엘 가야 한다’는 경구는 「소설·알렉산드리아」의 주인공이자 작가의 분신인 ‘형’의 삶을 대변한다. 사상은 어느 때 한번은 세상과 충돌하기 마련이고, 그런 충돌로 인해 ‘형’은 지금 10년 형기로 감옥에 갇혀 있다. 편집자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며 당하고 느낀 바를 픽션으로 승화시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작가의 수감체험을 소설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필화사건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한 억울한 처지를 말하고 그 부당함을 간접화된 방식으로 복수하는 내용이다. 그런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편집자는 작품 이름에 의도적으로 ‘소설’이라는 말을 붙이고 ‘픽션으로 승화시켰다’고 해서 감시자의 눈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에서 “감옥에서

11)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19면.

12) 「편집자의 말」, 『세대』, 1965.6, 334면.

편지가 나오려면 검열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에 넣으셔야죠.”라고 한 것은 그런 사실에 대한 작가의 고백이다. 작품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먼 이국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히틀러와 나폴레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그것을 ‘환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될 것이다. 작가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부정한 정치 현실에 맞설 도구가 필요했고, 알레고리는 정치 권력의 폭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적절한 글쓰기 양식이었던 셈이다.<sup>13)</sup>

작품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가 있다. 한국의 서대문형무소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원화된 공간 설정은 자신이 경험한 ‘검열’로 대표되는 폭압적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가자 그런 현실을 살아야 했던 현실적 삶에 대한 증언이다.

현실의 공간인 서대문형무소는 억울하게 옥살이는 하는 형의 세계이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세계는 분노와 억울함, 원한이 응혈진 장소이다. 형은 일제 때 대학에서 입신출세와는 거리가 먼 공부를 하면서 코스모폴리탄과 리버럴리스트를 자처했으며 5.16 직후에는 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10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논설위원이다. 형이 구속된 것은 2개의 논설 때문이었다. 2천 편 이상 쓴 논설 가운데 “조국이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 “이북의 이남화가 최선의 통일방식, 이남의 이북화가 최악의 통일방식이라면 중립통일은 차선의 방법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악시하는 사고방식은 중립통일론보다 위험하다.”라는 구절이 문제 되어 구속되었는데, 형은 그것은 오독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조국이 없다.”라는 말에는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조국이

13) 「소설·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고인환, 「이병주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자의식 연구」(『국제어문』48, 국제어문학회, 2010); 노현주, 「5.16을 대하는 정치적 서사의 두 가지 경우」(『문화와 융합』3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 5.16소설을 중심으로」(『비평문학』52, 한국비평문학회, 2014); 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경상대학교 박사논문, 2017.2); 조영일, 「이병주는 그때 전향을 한 것일까」(『황해문화』80, 새얼문화재단, 2013.9)

없으니 그러한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과 설명이 잇달아 있었지만, 그것이 무시되었고, 또 “중립통일”을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반공 국시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해되었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죄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여러 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응분한 노력을 다한 죄”, 곧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형이 더욱 억울해 하는 것은 논설을 썼을 때는 그것을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먼저 잡아 가둔 다음에 법률을 만들어서 적용한 소급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형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중심을 이룬다.

한편, 동생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서대문형무소와는 정반대의 공간이다. “고전적, 중세적, 현대적, 미래파적으로 음탕한 알렉산드리아. 아라비 안나이트적인 교함과 할리우드적인 교함과 이집트적인 교합”이 이루어지며, “다섯 종류의 인종이 붐비고, 다섯 종류의 언어가 소음을 이루고, 몇 타스의 교리가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곳에서는 “남성과 여성만으로는 다할 수 없는 성의 형태, 자웅동종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성은 분화하고 그로테스크하게 이지러져” 있다. 이 환상적인 공간과의 대비를 통해서 작가는 억울한 구속에 대해 소명하고 복수의 결의를 다지는데, 복수는 가상의 공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치에 의해 동생을 잃은 한스 쉘러와 독일군의 폭격으로 가족과 고향 모두를 잃고 무희로 살아가는 사라 안젤이 복수를 꿈꾸며 생활하는 곳이다. 한스 쉘러와 사라 안젤은 그곳에서 나치의 계슈타포였던 엔드레드를 불러들여 복수하는데, 곧 엔드레드를 유인하는 공연을 열고 엔드레드가 나타나자 한스와 사라는 술자리를 만들어서 살해한다. ‘엔드레드’의 살해는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작가는 환각의 힘을 빌려 이를 “병든 유럽 문명을 단죄”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 부여대로 알렉산드리아의 법원은 이들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퇴거’를 명하고 판결을 보류하는데, 이는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쓴 논설 한 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형의 처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작가는 형이 겪었던 군부독재의 횡포와 사라와 한스가 겪었던 스페인 내란,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사건을 알레고리적 유비 관계에 놓고,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국의 역사적 사실에 투사한 것이다. 이러한 등가관계를 통해 작가는 독재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이들의 ‘복수’를 성공시킴으로써 독재 권력에 대한 단죄를 시도한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 제시된 한스와 안젤에 대한 긴 변론은 복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안젤에 대한 변론에서, “빨갱이를 폭격하는 건 좋아요. 우익과 좌익의 싸움이니까 우익이 좌익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빨갱이를 폭격하려면 빨갱이 있는 곳을 폭격해야 되지 않겠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라는 주장은 좌익으로 오해되어 구속된 이병주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빨갱이도 아무것도 아닌 순박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오폭했다’는 주장이다. 또 혁명경찰이 내세운 일벌백계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그것은 위협하며 비인도적인 법운용이라는 것. 일벌백계란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나를 희생시켜 다수를 위한다”고 할 때, 언제나 희생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위협을 받는 다수는 막연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죄는 어디까지나 죄상과 정상 그대로를 확대추리와 확대해석을 피하고 다루어야 하지만 일벌백계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죄상과악과 정상참작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작가 자신이 일벌백계라는 잘못된 법운용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소설·알렉산드리아」는 시종 우익의 형식을 빌려 작가 자신의 억울함과 그에 대한 복수의 심리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검열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작가는 한편으로 그런 주장에 대해 ‘그것은 환각’이고 ‘정신병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도대체 그러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것 아냐. 조국이 없다가 뭐야.”<sup>14)</sup> 라고 하면서 동생은 형이 받은 10년은 너무나 적고 사실은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형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가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 감시자의 눈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쓴 1965년은 박정희 군부 정권은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공 정책을 한층 가혹하게 실시하던 때였고, 그런 현실에서 이병주는 이렇듯 간접화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피력한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 ‘형’이 출옥 후 “행동 스케줄”을 구상하는 장면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저러나 7년만 지나면 초라한 황제도 바깥바람을 쏘일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행동 스케줄을 지금부터 작성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 나는 누에 모양 스스로 뽑아낸 실로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누에 번데기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죽었다고까진 생각하지 안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번데기이긴 하나 죽지는 않았다. 언젠가 때가 오면 내 스스로 싸 올린 이 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어 창공으로 날을 것이다. 다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잡혀 곤충 표본함에 등에 바늘을 꽂히우고 옆드려 있는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간악한 날짐승을 피하고 맹랑한 네발짐승도 피하고 전기가 통한 전선에도 앉지 않을 것이고 조심스리 꽃과 꽃 사이를 날라 수백 수천의 알을 낳을 것이다.<sup>14)</sup>

다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잡혀 곤충 표본함에 등에 바늘을 꽂히우고 옆드려 있는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이후 이병주가 폭풍처럼 쏟아낸 작품을 통해서 입증되거나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준 것이 검열의 고리가 약화된 시기에 발표된 『그해 5월』이다.

14)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세대』, 1965.6, 345면.

15)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세대』, 1965.6, 410면.

### 3. 증언과 기록으로써의 글쓰기(『그해 5월』의 경우)

동생을 초점 화자로 해서 ‘형’의 심경을 서술했던 「소설·알렉산드리아」와 달리 『그해 5월』은 작가가 직접 등장해서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그해 5월』은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해서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사의 변론, 신문의 사실 등을 인용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듯 서술하였다. 작가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쓰기에 시간적인 거리가 아직”이라고 “다만 나는 허상이 정립되지 않도록 후세의 사가를 위해 구체적인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인공의 이름을 ‘이사마’라고 정한 것은 그런 의도와 관계되는 바, ‘사마’는 『사기』를 쓴 사마천의 성(姓)에서 따온 것으로 “20세기 한국의 사마천”이 되고자 하는 결심의 표현이다.<sup>16)</sup> 실제로 『그해 5월』은 이사마로 개명한 작가 이병주의 박정희 집권기에 대한 실록적 기록이다.<sup>17)</sup>

『그해 5월』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5.16을 ‘혁명’에서 ‘쿠데타’로 조정한 대목이다. 「소설·알렉산드리아」의 화자는 5.16을 ‘혁명’으로 명명했는데,

16) 그런 점은 『그해 5월』뿐만 아니라 수필집 『백지의 유희』(남강출판사, 1973)에서도 언급된다.

“竹簡에 한자씩 새겨 넣고 있는 사마천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심정을 추측하면 실로 처절하다고도 할 수 있는 기록자의 태도와 각오에 부딪친다.”(65면)

17) 실제로 『그해 5월』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자전적(증언적) 기록에 가깝다. 개인사와 일치하는 실제 체험을 서사의 근간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 구속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장황하게 나열하며, 언급되는 인물들 역시 대부분 실재했던 사람들이다. 더구나 작품의 시점 역시 혼란을 보여서, 작가가 구속되고 출소하기까지는 작가의 친구인 ‘나’가 화자로 등장하지만, 작가가 출옥한 이후에는 작가 자신이 주인공이자 화자로 등장한다. 1권 처음부터 3권의 「1963년 12월 17일」 전반부까지는 ‘나’가 화자이고, 출옥한 직후에는 작가인 ‘이주필’이 서술자가 되고, 다음 장인 「망명의 피안」에서는 ‘이사마’로 개명한 작가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3권 후반부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그런 시점의 변화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미적)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채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해 5월』에서는 영국 기자 조스의 입을 빌려 ‘쿠데타’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혁명이란 제도의 변혁이다. 왕제를 공화제로 한다든가 자본제를 공산제로 한다든가 하는 식의 변혁이다. 반면 쿠데타는 체제는 그대로 둔 채 권력만을 빼앗는 수작이다. 가령 민주당 정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4년 후엔 바뀔 수 있는 정권이고, 헌법에 의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런 정권을 임기 전에 빼앗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막강한 무력을 가진 군대가 정부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헌법 유린을 예사로 할 수 없고, 그런 이유에서 쿠데타를 긍정할 수 없다고 한다. 작가의 생각이 집약된 이 견해대로 『그해 5월』은 쿠데타 세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기록이다.

박정희 권력의 만행은 우선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 시작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이때까지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 1호를 앞세워 ‘빨갱이’라는 심증만 들면 누구든 영장 없이 잡아들였다. “김일성의 주구들과 그 동맹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뿌리째 뽑아 우선 사회를 정화해야 하겠다”는 것. 쿠데타와 함께 단행된 대대적인 검거선풍은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진보적 입장을 견지했던 이병주가 구금된 것도 ‘용공단체인 교원노조의 고문’을 맡았다는 데 있었다. 또 쿠데타 과정에서 비협조적이던 국무총리 장면과 일곱 명의 각료를 제거한 것도 ‘용공분자로서의 혐의’였다. 그런 명분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나는데, 작가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분개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이다.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정리는 조용수의 비극이 이병주 자신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동병상련의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조용수의 혐의는 공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조용수 등이 위장 평화통일로 용공세력을 부식, 민족일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일 혁신계, 한인 부정자금을 투입하고, 〈민족일보〉를 통해서 반국가체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선동·고무·동조했다는 것”

(공소장) 이를테면,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한 것이 북한 괴뢰집단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장 조용수는 사형을 구형받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 역시 반공을 앞세워 진보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8)</sup> 〈민족일보〉는 창간된 뒤 민주당 정권이 제정하려 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등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이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이다. 평화통일론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60년대 초반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공감을 얻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민족일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633호)’은 1961년 6월 22일에 공포되었는데, 공포된 날로부터 3년 6개월 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급법이었다. 이병주가 억울해하는 엉터리 법 적용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 조작과 부적절한 법 적용이었기에 작가는 화자의 입을 빌려 “조용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정열이 너무나 순일하다는 점일 뿐이다. 그의 정열은 순일하여 때론 과격할 정도였다. 해방 직후 진주서 좌익과 싸울 때도 그는 생명을 걸었고, 일본에선 조총련의 동포 복송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의 레일 위에 드러눕기까지도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1권 218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조용수 사건과 함께 장황하게 언급되는 것은 이전 작품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병주 자신의 필화사건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한 심경이다. 주인공 이사마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10년을 언도받았지만, 그것은 소급법의 적용을 받았고 또 공소장의 내용도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가는 구속의 원인이 된 두 개의 논설 전문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조국의 부재」(『새벽』, 1960.12)에 대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게 주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만 조국이 있고, 이러한 형태로서의 조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조국이 아니라고 하고, 차선의 방법으로서 중립화 통일을 하여

18) 조용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진석의 「민족일보와 혁신계언론 필화사건」(『관훈저널』 49), 관훈클럽, 1990.7) 참조.



외국과의 제 군사협정을 폐기하고 외국이 철수해야만 조국이 있다는 등의 선전 선동을 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이 소개된다. 또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국제신보〉, 1961, 1.1)에서는 “대한민국과 북괴를 동등시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기한 민중의 의사에 따라오지 않으면 폭등을 일으켜야만 통일이 되는 것같이 선동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했다는 공소장을 제시한다. 이 모두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작가는 「조국의 부재」와 「통일에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자」의 전문을 제시해 스스로를 입증하고자 한다.

중립통일이란 이 심각한 ‘한국적’ 현황 속에서 고민에 빠진 젊은 지성인들의 몸부림이다. 중립통일론은 고민 끝의 하나의 결론이다. 이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이 논의 자체를 그저 부정하려는 심산에 우리들은 음흉한 술수를 본다. / 이북을 이남화한 통일을 최선이라 하고, 이남이 이북화된 통일을 최악이라 할 때, 중립화 통일론은 차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이북의 이남화란, 무력에 의한 정복의 방법 외엔 불가능할 때 굳이 최선이라고 해서 한국의 헌법 절차에 의한 통일만을 원한다면 이는 통일하지 말자는 의사표시나 별다른 것이 없다. / 그리고 곧 중립화를 공산화라고 우기는 부류가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중략) 자주성을 가진 평화적 통일을 우선 마련해 놓고, 다음은 민주정신·민주정치에 의한 공산주의의 흡수·소화, 이런 방향으로 정치인의 패기가 발현되지 않고선 조국은 아득한 미래에 있는 것이다. 요는 중립통일론까지를 사고 범위에 포섭하는 민주주의적 논의의 바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sup>19)</sup>

‘중립통일론까지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적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또 용공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중립통일에 관

19) 이병주, 『그해 5월』(2권), 한길사, 2006, 23-4면.

한 논의까지도 허용하는 언론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지 중립 통일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사마는 교원노조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는 것과 용공이라는 특수 반 국가 행위로 10년 징역이 확정된다.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작가는 변호사의 입을 빌려, 그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필이 억울한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그 사건을 맡았으니 더욱 더 잘 알죠. 오죽해서 이 주필이 최후의 진술 때 2천여 편이나 쓴 논설 가운데 단 두 개를 골라선 그것도 천 수백 행의 문장 중에서 불과 20행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이곳저곳을 발췌하고 함부로 연결을 지어 불온사상을 적시하는 이런 수단을 써서 사람을 엮어맨다면 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취사 선택하고 당신들처럼 확대해석해서 케네디를 크레물린의 스파이로 몰 수가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아 두십시오. 억울한 사람은 이 주필만이 아닙니다.”<sup>20)</sup>

작가에게 적용된 법은 발췌와 확대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작품 전반부는 이와 같이 작가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와 달리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면서 ‘기록자’의 위치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는 우의의 형태로 박정희에게 복수를 했지만, 『그해 5월』에서는 박정권에 대한 판단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것. 출옥 후 박정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정권의 편에 설 수는 없어. 세워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할 의사는 없어. 나는 오직 지켜볼 뿐이야. 기어이 레지티머시(합법성)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끝 끝내 그러지 못하고 파산할 것인지 지켜볼 뿐이다.”(3-226) 이를테면, “박

20) 이병주, 『그해 5월』(2권), 한길사, 2006, 170면.

정희가 만일 앞으로 좋은 치적을 쌓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받들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sup>21)</sup> 그런 생각에서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7일까지에 있었던 일은 괄호 속에 묶어 불문에 부치고, 기록자로 남겠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 인해 작품은 외견상 박정희 집권기에 대한 실록적 기록으로 일관하는데, 그 서술은 집요하고 구체적이어서 마치 기록 영화를 보는 듯하다.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3권에서 제시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자행된 각종 공안사건과 반혁명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1년 7월, 부정선거 관련 최인규, 한희석, 송인상, 임흥순, 신도환 등 5건, 민족일보사건의 조용수, 폭력행위사건의 이정재 등 공소 제기
- 7월 29일, 민족일보 사건 공판(공소장 제시), 장건상(독립운동가, 중립통일 주장) 구금
- 10월, 이주필(이병주)과 논설위원 변노섭의 공판(공소장 및 변론, 「조국의 부재」 및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 원문 제시)
- 12월 21일, 곽영주(이승만 경호책임자), 최백근, 최인규, 임희수, 조용수 사형 집행
- 12월 23일, 장도영 외 4명 반혁명사건, 사형 구형(공소장 수록, 증인 박정희의 증언 속기록, 김형욱의 증언 속기록, 판결문, 변호인의 상소장 제시)
- 유족회사건(6.25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골을 찾는 모임)

21) 박정희에 대한 이병주의 태도는 「소설·알렉산드리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출옥 후에도 박정희와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측근 인물들과도 친분을 유지했던 데서 그런 태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원한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어서인지, “이병주에게 박정희란 빛의 무게중심을 상실할 정도로 소설적으로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고 한다. 조영일의 「이병주는 그때 전향을 한 것일까」(『황해문화』80, 세일문화재단, 2013.9, 292-302면) 참조.

- 김동복 예비역 대령, 6군단장 김응수와 제8사단장 정강도 반혁명 사건(공소장 및 판결문 제시)
- 1962년 5월 2일, 밀수범 두목 한필국 사형(공소장과 판결문, 상소 이유서 제시)
- 1963년 3월 11일, 박정희 의장 암살 음모 사건 발표(이규광 예비역 준장, 대령 2명, 중령 5명)
- 8월 11일, 내각 수반 송요찬 구속
- 1963년 12월 16일 이병주 부산 형무소에서 출감
-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

위의 사건들은 간첩 혹은 간첩단으로 발표된 공안사건의 일부이다. 주지하듯이,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공안사건은 공안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려는 의도와 행위를 한 조직과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박정희 시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은 주로 ‘간첩’ 혹은 ‘간첩단’으로 발표되었던 사건이었다. 1964년 8월 14일에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 1967년 7월 8일의 동베를린 거점 북한대남공작단사건, 1968년 8월 24일의 통일혁명당사건, 1971년 4월 20일의 재일교포 유학생학원침투 간첩단 사건, 1974년 4월 25일의 인민혁명단 사건,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사건들은 공안 당국에 의해 간첩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으로 송치 또는 기소되었다.<sup>22)</sup> 이병주는 작품에서 이 사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박정희의 행위를 비판하는데, 그것은 이들 사건이 모두 박정희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술책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데 있다. 가령, 동백림사건은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총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여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에 발표되었고, 북한의 청와대 침투와 미

22) 박정희 집권기의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정호기의 「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7.8, 266-287면) 참조.

국 정보함 프예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정치·군사적으로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1968년 8월에 통혁당사건이 발표되었다.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공안사건이었던 남민전 역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된 엄혹한 정세 속에서 발표되었다. 이런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작가는 “무리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호도하기 위한 무슨 수단이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에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 용공과 좌익의 혐의를 이용한 것이고, 그것은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였었다. 『그해 5월』은 이런 실록적 요소들로 채워진 관계로 소설이라기보다 차라리 ‘5.16의 역사적 평가를 위한 한 우수한 관찰자의 기초자료 모음집’<sup>23)</sup>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여기서 작가의 관찰과 정리가 특히 돋보이는 것이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이다. 오늘날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문제는 이병주의 관찰과 정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집요하다. 가령,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려면 먼저 국민의 생명 문제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고 따라서 적어도 일본인 전사자에 준하는 처우는 당연히 청구해야 하며, 명분도 정당했다. 그런데 한일회담을 주도한 김종필이 선거 때 일본으로부터 사적으로 70억 원을 받았고, 또 군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 그에 대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설치되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는 당연히 한국에 유리하도록 일본의 양보를 촉구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했지만, 이처럼 뒷거래가 있었기에 명분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5억 달러로 정리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던 것이다.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의 경제원조는 사죄에 필요한 최저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23) 임현영, 「기전체 수법으로 접근한 박정희 정권 18년사」, 『그해 5월』(6권), 한길사, 2006, 290면.

못한 것이고, 그런 굴욕외교였기에 반대투위가 생기고 연일 성토 데모가 벌어졌던 것이다. 작가는 이런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협상의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데, 이 문제는 ‘작가 후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될 정도로 작가가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다. 가령, 대만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았더라면 최소 42억 달러는 받았어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기껏 5억 달러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전말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장군의 시대’는 계속 썩어져야”(곧, 박정희 집권기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다음으로 시선을 끈 것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이다. 최태웅으로부터 남정현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마는 「분지」가 북괴 선전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수궁하지 못한다. 남정현은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예리한 관찰안과 수발한 문제의식을 가진 뛰어난 작가’로, 「분지」는 조국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치부적인 상황을 보아넘길 수가 없어서 쓴 작품이다. 이사마는 남정현 씨의 작품을 다시 읽고도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쓴 작가를 체포해야 했는가를 납득하지 못한다. 과격한 선동적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미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미국을 비판하는 마음의 바닥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편을 들자”

“한국을 말살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다면 작가이건 시인이건 어떤 예술이건 체포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제약이니까. 그러나 반공의 명분으로써 남정현 씨를 체포할 수는 없다. 반공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반대라야 하니까.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다. 적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방침이 아닌가. 그런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반공이다. 그렇다면 남정현 씨를 엮어 범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산당적인 수법이 아닌가.<sup>24)</sup>

이사마는 지금 감방에 있는 남정현 씨의 모습을 상상하고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은 성립될 수 없는 또는 지탱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 문학을 말살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는 것. 비록 필화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씌어진 작품이지만, 이사마의 이런 시각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반공주의의 허구에 대한 통절한 비판이자 고발이다. 작품 말미에서 “반공문학조차도 가능하지 못한 상황은 휴머니즘문학도 질식케 한다.”고 일갈한 것은 몸소 겪고 체험한 현실에 대한 매서운 일침이다. ‘기록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그 의도대로 자료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듯 “5.16에 의해 희생된 군상”을 기록함으로써 “5.16은 민족사적으로 민주정치사적으로 결정적인 비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작가는 작품을 마무리한다.

#### 4. 통일에서 통일로 종결된 문학

4·19혁명 직후 김수영은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4·26 전까지 나의 작품 생활을 더듬어 볼 때 시는 어떻게 어벌쩍하게 써 왔지만 산문은 전혀 쓸 수가 없었고 감히 써 볼 생각조차도 먹어 보지를 못했다.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 말하자면 시를 쓸 때에 통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캄푸라주’(위장)가 산문에 있어서는 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sup>25)</sup> 이 고백

24) 이병주, 『그해 5월』(4권), 한길사, 2006, 197면.

25) 김수영, 「책형대에 걸린 시—인간 해방의 경종을 울려라」, 『김수영 전집2』, 민음사, 2018, 230면. 원문은 <경향신문>, 1960, 5.20.

대로 4·19를 겪으면서 김수영은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해 격앙되고 과감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 놓았다. 4.19는 진보와 자유를 향한 근대적 이상의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작가들은 그런 현실에 환호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혁명은 군사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면서 실패로 귀결되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 /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sup>26)</sup>라고 자조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시점에서 이병주는 한때 술자리를 같이했던 박정희에게 구속당하는 비운을 겪는다. 박정희는 쿠데타와 함께 좌익과 혁신정당 등을 영장도 없이 잡아들였고, 거기에 이병주도 걸려든 것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혁명공약대로 박정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중앙정보부법을 강화·신설하여 반공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작중의 〈민족일보〉 사건이나 통일혁명당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사건, 남정현 필화사건 등은 그런 억압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그 강압적 현실에서 작가들은 상상력과 표현에서 큰 제약을 받았다.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공을 앞세웠고 그것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제압하였다. 해방과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적색공포증에 시달렸던 것은 정치권에서 그것을 이렇듯 악용한 데 있다. 전후 현대문학은 광기와도 같은 이 반공주의의 폐단을 척결하고 삶과 사회 전반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이 반공주의가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기제로 내면화되어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런 사실을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와 『그해 5월』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고문이나 구속과

26) 「그 방을 생각하며」, 앞의 책, 160면.



같은 원초적 공포와 결합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통일의 문제를 천착할 경우 자칫 작가들은 반공주의의 검열망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이병주가 출옥 후 발표한 작품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먼 외국을 배경으로 전제 군주를 비판하고 징벌하는 서사를 구성한 것은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감푸라주’(위장)였다. 박정희 사후 발표한 『그해 5월』에서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구속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박정희의 만행을 기록한 것은 자기검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이병주는 “땀땀한 직장을 갖지도 못하고,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자유를 구속당한 채 전전공공 살아왔다. 그런 공포와 강압에서 이병주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작품 역시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기록자가 되어 박정희 집권기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그해 5월』은 한 시대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문학적 소임을 수행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공안사건 외에도 『그해 5월』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박정희의 폭정이 북한에 의해 조장된 면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인 35명과 북한 무장유격대 30명이 사망한 청와대습격사건(1.21사건)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인명의 손실을 가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구속하는 질곡을 낳았다. 1960년대 후반기에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엄청나게 늘었고, 김일성은 70년대에 가서는 남조선을 해방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남공작을 급격하게 활성화시켰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간첩의 침투를 막는 정책이나 방침을 강화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정책이나 방침이 되고 또 반정부 행동을 이적행위로 보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박정희는 북한의 침략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3선 개헌을 밀어붙이고 관철시켰다. 그런 현실을 적시하면서 작가는 “죽어가는 것은 북한의 인민이고 남한의 인민이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남북의 통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안정은 바랄 수 없

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선 민족이 그 품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문제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작품 말미에 언급된 이런 견해는 이병주 문학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주를 구속시킨 두 편의 칼럼이나 대표작 「소설·알렉산드리아」, 『관부연락선』, 『지리산』, 『소설 남로당』 등은 모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분단과 검열의 족쇄를 뚫고 나간 이병주 문학의 행로란 결국 통일에서 시작해서 통일로 종결되는 통일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세대』, 1965.6.
-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 이병주, 『그해 5월』(6권), 한길사, 2006.
- 이병주, 『1979년;이병주 칼럼』, 세운문화사, 1978.
- 이병주, 『백지의 유혹』, 남강출판사, 1973.
- 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 김수영, 『김수영 전집』(1, 2), 민음사, 2018.
- 고인환, 「이병주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자의식 연구」, 『국제어문』48, 국제어문학회, 2010.
- 김혜진, 「김수영 문학의 ‘불온’과 언어적 형식」, 『한국시학연구』제55호, 한국시학회, 2018.8, 191-2면.
- 노현주, 「5.16을 대하는 정치적 서사의 두 가지 경우」, 『문화와 융합』3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 5.16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52, 한국비평문학회, 2014.
- 이호철, 「분단 극복과 우리 소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국학자료원, 2001, 209-211면.
- 임현영, 「기전체 수법으로 접근한 박정희 정권 18년사」, 『그해 5월』(6), 한길사, 2006, 290면.
- 임현영, 「분단 후 작가 구속 1호 이병주」, 〈경향신문〉, 2017, 3.2.
- 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2017.2.
- 정미진,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 이병주 사상 재론」, 『배달말』63, 2108.12.
- 정진석, 「민족일보와 혁신계언론 필화사건」, 『관훈저널』(49), 관훈클럽, 1990.7, 109-136면.
- 정호기, 「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7.8, 266-287면.
- 조영일, 「이병주는 그때 전향을 한 것일까」, 『황해문화』80, 새얼문화재단, 2013.9.
- 조항제, 「언론 통제와 자기검열-개념적 성찰」, 『언론정보연구』54(3),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7.8, 41-72면.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18.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Abstract>

Anti-communist discipline  
and self-censorship narrative

– Focus on the 『Novel·Alexandria』 and 『May of that year』

Jinho, Kang

This paper focused on anti-communism that was internalized by writers as a mechanism of self-censorship, thereby seriously affecting the form and content of the work. Here, the fact was examined in Lee Byung-joo's 『Novel·Alexandria』 and 『May of that Year』. Anti-communism was not a simple denial of communism, but combined with primitive fears such as torture or implicative system, so writers suffered a severe obsession that they might get caught in the censorship of anti-communism if they wanted to delve into the issues of division and ideology. In this reality, Lee Byung-joo was arrested on charges of bravery immediately after Park Chung-hee's coup,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and released after serving two years and seven months. In the title of the work released by Lee Byung-joo after he was released from prison, the word “novel” was intentionally inserted, while composing the narrative set in a distant foreign country, “Alexandria”, was a device to avoid the eyes of the observer. In 『May of that Year』, which was released after Park Chung-hee's death, it was possible to mobilize various data to express the unfairness of arrest and record Park Chung-hee's atrocities due to the low level of self-censorship. With Park Jeong-hee's death, Lee Byung-joo became a ‘recorder’ and described the entire process of Park

Chung-hee's reign in a diary format, so that 『May of that Year』 performs a literary duty to testify and accuse an era. It is very meaningful to point out that Park Chung-hee's tyranny was encouraged by North Korea. In the late 60s,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increased dramatically, and Kim Il-sung set a goal of liberating South Korea in the 70s and rapidly activated North Korea's espionage against South Korea. As a result,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reinforced the policy or guideline to prevent the penetration of spies, which in turn became a policy or guideline to control the people and provided an excuse to view anti-government action as an act benefiting the enemy. Pointing to that reality, the artist said, "It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that are dying. Pointing out that reality, the author said, "It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are dying. Thu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e asserts. Unless there is unification, stability cannot be desired, and the nation cannot maintain its dignity without a stable state. If so, the problem lies in how to unify. This view mentioned at the end of the work can be seen as an integration of Lee Byung-joo's literature. The two columns that arrested Lee Byung-joo, and his representative works including 『Novel Alexandria』 and 『Jirisan』, 『May of that Year』 and 『Novel Namroodang』 all contain concerns about unification. Considering such facts, the path of Lee Byeong-joo's literature, which broke through the shackles of division and censorship, can be said to be a Unification Literature that eventually begins with unification and ends with unification.

Key words: 『Novel-Alexandria』, 『May of that year』, anti-communism, self-censorship, An incident where the published article causes legal and social problems, Unification Literature

투 고 일: 2021년 5월 14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